

테마칼럼

경제포럼 세상보기

이슈포럼의 쏠림

민고공제 참여

정문·문화 대상

전라도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려면



김현언

최근 세계적인 금융, 실물경제 위기로 우리 지역의 여러 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브랜드 파워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한다. 브랜드 파워는 기업이 쓰러질 때도 오히려처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랜드 파워란 원래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감도를 말하며 기업성공의 핵심요인이기 때문에 우량기업들은 기업이미지를 주요 경영 전략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이나 개인에게도 그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브랜드 파워로 작용해 경쟁력을 좌우한다. 얼마 전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발족시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전라도의 브랜드를 강화한다면 전라도의 상품, 전라도출신의 인재, 전라도의 투자유치 등이 훨씬 유리해진다. 소위 마케팅에서 말하는 원산지효과(country of origin effect)다. 지역의 브랜드이미지는 자연풍광과 산물, 역사와 문화, 사람의 기질과 품행이 복합되어 있지만 특히 기질이나 품행은 타지역 사람의 감성 깊은 곳까지 작용하게 되므로 브랜드 파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라도는 예향, 의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는 서민적이고 풍류적인 예술과 강한 의기(義氣)의 민중적 투쟁 기질에서 유래한다. 의기와 투쟁의 기질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지만 지배계급이 되어 문화를 지배한 적이

없고 문화 흐름의 원류가 되지 못하여 브랜드 파워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문화나 경제는 정치적인 색깔을 띠시 경계하며 정치적이고 투쟁적인 지역이미지는 최고경영자들의 투자를 기피하게 만든다. 브랜드 파워는 소비자중심의 사고에서 출발한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도 중산층이 명품을 선호하는 것은 문화적 리딩그룹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브랜드 파워를 높이려면 소비자와 동류의 문화적 태도를 지닐 수 있어야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사교적인 모임에서 정치적 화제를 즐겨하는 사람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대화하는 중에 인성을 높이는 사람을 피하려는 것들도 이러한 문화적인 태도의 차이이다. 소비자가 선택한 상품은 자기의 문화를 반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품위 있는 지역구성원의 문화가 브랜드이미지로 연상되면 지역의 브랜드 파워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전라도 사람들은 매너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흔히 "잡대기가 될 소용 있어 알맹이만 좋으면 되지" 하면서 내용물만을 중요시하고 포장은 소홀히 한다. 그러나 명품이 포장도 좋고 알맹이도 좋은 것처럼 포장은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경유에 따라서는 상품의 진면목을 느끼게 하여 그 가치를 높여 준다. 사람에게 있어 매너는 상품의 포장과 같은 역할을 하며 공공생활에서 문화

적 평가의 출발점이 된다.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는 이웃의 문화와 융화하고 문화가 융화되면 갈등이 줄어들어 편안해진다. 한국에 온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한국이미지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음식이고, 가장 싫은 것은 매너 없고 무례한 행동으로 조사된 적이 있다. 매너는 국회에서도, 거리에서도, 그리고 민원실이나 선술집 등 모든 생활공간에서 전라도의 브랜드 파워로 쌓여간다. 또한 매너는 사교모임에서뿐만 아니라 입사 시험 면접장에서도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매너가 좋은 사원은 기업경쟁력의 자원이며 그 사원은 개인의 유년시절부터 길러질 수 있는 값진 산물이기 때문이다.

전라도사람은 감성적이고 의(義)는 강하지만 지(智)가 부족하여 행동이 경박하고 간교하게 보일 가능성이 많다(나경수, 남도인의 인성구조)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나라를 위한 희생을 많이 치렀고 순수한 인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포장이 서툴러 브랜드 마케팅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세련되고 우아한 포장으로 바꾸어 명품을 만드는 브랜드 제조사로서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포대 경영학과 교수〉

또 발목잡힌 J프로젝트, 정부 의지 있다

전남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서남해안 레저도시 개발계획(J프로젝트) 승인이 예기치 못한 복병으로 또다시 보류됐다. 농식품부에 이어 이번엔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가 만류를 걸고 나선 것이다. J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일 중도위는 '전남도가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한 삼호·구성지구 도시계획 공간의 범위가 불확실하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즉 삼호지구와 구성지구 등 939만 평을 나머지 4개 사업지구와는 별개로 보고 도시계획을 심의해야 할 것이지, 아니면 J프로젝트의 전체 사업지구인 87.9km 모두를 도시계획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농식품부가 J프로젝트 예정부지 가운데 일부 지역에 대규모 철단 두지 못했던 세련되고 우아한 포장으로 바꾸어 명품을 만드는 브랜드 제조사로서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매너는 사교모임에서뿐만 아니라 입사 시험 면접장에서도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매너가 좋은 사원은 기업경쟁력의 자원이며 그 사원은 개인의 유년시절부터 길러질 수 있는 값진 산물이기 때문이다. 전라도사람은 감성적이고 의(義)는 강하지만 지(智)가 부족하여 행동이 경박하고 간교하게 보일 가능성이 많다(나경수, 남도인의 인성구조)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나라를 위한 희생을 많이 치렀고 순수한 인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포장이 서툴러 브랜드 마케팅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세련되고 우아한 포장으로 바꾸어 명품을 만드는 브랜드 제조사로서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하기까지 갈 길이 먼데 안타깝기 그지없다. 5월 전남도는 중도위가 보안을 요구한 '도시계획공간의 범위'에 대해 기존에 신청한 삼호·구성 2개 지구 1천만 평만을 심의대상으로 확정해 재심을 요청했다. 중앙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삼호·구성지구 2곳에 대해서만 우선 중도위에 심의를 요청하고, 나머지 4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과정을 보아가며 순차적으로 개발계획 심의를 받았다는 얘기다. 정부는 더 이상 J프로젝트 개발계획 승인을 미루서는 안 된다. 최근 전남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도 J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식발표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승인을 계속 미루는 것은 J프로젝트의 발목 잡기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전남도의 재심의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이는 곧 J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기표이기도 하다.

실사만 한달 걸리면서 자금 조기집행 한다고

경제현과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무등록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집행 공백이 좁아지고 있다고 한다. 일선 현장의 인력부족과 사전준비 소홀, 높은 이자율 등으로 자금지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자금 조기집행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본부에는 요즘 하루 10건 이상의 자금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혹독한 경기침체 여파로 돈줄이 말라 위기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의 SOS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사·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은 단 4명밖에 없어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자금 신청을 하고 한 달이 넘도록 실사조차 받지 못하는 기업이 60곳을 넘고 있다. 정부의 중기 자금지원이 '사후 약방문'이 될 우려가 큰 것이다. 영세 기업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500만 원까지 신용대출 해주는 '무

등록 소상공인 특별보증'은 아예 신청자가 없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 특별보증을 받기 위해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보증인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도 정부의 정책자금 금리의 2배에 가까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특별보증 제도로 영세 기업과 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기업과 서민에게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점검할 수 없다. 정책이 정책이 아니라 실행이 실행이 되어야 한다. 정책이 실행이 되어야 정책이 실행이 된다. 정책이 실행이 되어야 정책이 실행이 된다. 정책이 실행이 되어야 정책이 실행이 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All the Time"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포시는 말귀도 못 알아듣는 세 자녀에게 '어릴적 꿈을 진짜로 이루기를 원한다'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라도 진실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이익에만 빠져드는 소위 힘 있는 지도자들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싸이코패스)를 만들어 내는 온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거짓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힘을 덜 들이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아무 희망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마침내 더 깊은 절망으로 던져버립니다. 고통은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매를 때려버릴까요? 고난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역사 고비마다 주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절망의 산실로 공포의 거대한 집으로 믿고 좌절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새 역사를 만드는 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난은 쓴 약이라 쓰지만 질병을 낫게 하는 약으로 받아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은 고집감과 같은 겁니다. 그 고난을 받아 마시는 것이 '진실'일 때 희망이 옵니다. (광주서현교회 목사)

희망은 고난이라는 집에서 자라납니다

받고 6개월 밖에 남지 않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던 그는 무엇을 말해주기에는 너무 어린 세 자녀들에게 옹고 그를, 현명함,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게 될 장애물들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강의는 미국의 주요 TV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전파되었고 그의 강의는 책으로도 엮여졌으며, 출간 즉시 아마존과 뉴욕타임스의 종합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때 그에게서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 내게 조언을 구한다면, 그리고 내가 오직 세 단어만을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진실만을 말하라(Tell the Truth)'를 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 단어가 더 허용된다면, '언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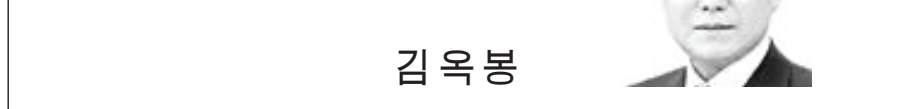
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아무 희망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마침내 더 깊은 절망으로 던져버립니다. 고통은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매를 때려버릴까요? 고난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역사 고비마다 주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절망의 산실로 공포의 거대한 집으로 믿고 좌절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새 역사를 만드는 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난은 쓴 약이라 쓰지만 질병을 낫게 하는 약으로 받아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은 고집감과 같은 겁니다. 그 고난을 받아 마시는 것이 '진실'일 때 희망이 옵니다. (광주서현교회 목사)

식당 콜벨, 용건에 따라 벨소리 다르게 해 능률 올렸으면

요즘은 큰 식당뿐만 아니라 웬만한 곳에는 손님들이 필요할 때 종업원을 부를 수 있도록 'call' 벨이 설치돼 있다. 아이 주먹만한 원격조종 장치가 테이블 구석 한 쪽에 붙어 있어서 한번 쪽 누르면 종업원이 해당 테이블로 총알같이 달려오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 콜 벨은 손님이 부르면 일단 테이블까지 왔다가, 손님이 뭔가를 요청하면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이다. 즉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에 말쑥이 있는 손님이 불러서 "네"하고 쫓아갔다가 "물 좀 더 주세요"라고 하면 물을 준비해서 가져다준다. 상당히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인력낭비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필자가 미국 LA에 가서 본 것인데 그곳에

도 테이블에 콜 벨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은 그 벨은 우리처럼 무작정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CALL, BILL, WATER'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돼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객은 물이 필요하면 WATER를 눌러 물을 곧바로 요청하고, 종업원은 두 번씩 오가지 않고 단번에 물을 들고 달려가면 되는 시스템이었다. 이는 상당히 합리적인 방식이다. 우리나라 식당들도 그렇게 바꾼다면 종업원들이 그만큼 덜 바쁘게 될 것이고, 덜 바쁜 만큼 일 처리가 빨라 손님들 더 많이 받아 식당 매출도 늘릴 것이다. 아울러 손님들도 더 편하게 더 친절한 응대를 받으며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중섭·광주시 동구 호남동

기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쉽게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으리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회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분들의 삶이 가장 먼저 힘들어 지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삶이 어려워지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 건강관리가 소홀해지고 특히 구강 건강관리는 우선순위에 밀려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런 힘든 때에 광주시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전국최초로 전남대 치과병원에 유치되어 조금이나마 장애인 분들

광주에 전국 첫 장애인구강센터 유치하다

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6만명이 넘고 있으며 장애는 선천적 장애뿐만 아니라 질환이나 사고 등에 의한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된다. 또한 노령화에 따라 노인성 장애도 큰 원인 중에 하나이다. 특히 우리 광주·전남지역은 65세 이상 인구를 살펴보면 전국 1위로 전국 최고의 고령자 사회이다. 따라서 노인성 장애인 수도 타 시도에 비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삶에서 음식물 섭취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강 건강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혼자서 열심히 잇솔질을 하여 구강 건강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활동제한을 초래한 질병 중 장애인에게서 구강질환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분들이 구강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점검을 통해 도움을 주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 구강 진료소가 절실한 상태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광주시와 전남대 치과병원의 적극적인 공동 노력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전국 최초로 광주시에 개소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 장애가 있는 분들이 전문적인 치료

지하철내 성추행 여전... '죄' 보다 '방관' 더 화나

얼마 전 전철을 탔는데 바로 옆자리의 남자가 계속해서 몸을 밀착시켰다. 승객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면 모를까 다른 자리도 열려 있는데 유독 내 옆에 앉아서 그런 행동을 했다. 참다 못해 옆으로 비켜 앉았는데 약 10분 후 승그머니 내 옆으로 더 다가와 몸을 밀착시켰다. 결국 용기를 내어 좀 비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 남자는 오히려 "이 여자가 어디다 대고 큰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라며 큰소리를 쳤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참아도 참았지만 그냥 물러서면 나만 바보가 될 것 같아서 다시금 "경찰 부를까요?"라고 따졌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주춤함 일어나면서 나를 노려보고는 이제는 상대질까지 하면서 나에게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너무나 황당했지만 나를 너무나 속상하게 한 것은 그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점이였다. 게다가 힘글힘글 보면서 소곤거리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키크기까지 웃기까지 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부끄러움도 해서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지만 별도라가 없었다. 만약 약이었거나 지하실 내에 사람이 아주 적기라도 했다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를 일이고, 또한 내가 내리는 곳에 같이 내려 헤코지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짓을 한 남자는 말할 것도 없겠지, 이런 상황을 뻔히 보고 알면서 그냥 구경만 하는 세태가 너무나 씁쓸한 하루였다. ▲양창숙·광주시 남구 구소동

無等鼓

"드라마는 드라마일뿐 착각하지 말자"고 복창하며 봐야 할 드라마가 있다. KBS 2TV 월화미니시리즈 '꽃보다 남자'다. 방송 10여회 만에 시청률 30%를 넘기며 승승장구 하고 있다. 한마디로 신드롬이다. 40대 엄마도 10대의 딸도 F4 (플라워 포·꽃미남을 지칭) 구준표(이민호 분)의 살인미소에 흠뻑 젖어 있다. 이 드라마의 원작은 일본의 카미오 요코가 창작한 만화다. 제목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뜻인 일본 속담 "꽃보다 경단(하나요리 단고)"에서 따왔다. 대만과 일본을 거쳐 한국에서 3번째로 드라마화했다. 줄거리는 초상류층

내용이다. 전형적인 '신데렐라' 또는 '퀵리' 스토리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열광할까? 전문가들은 "드라마의 내용이 청소년들의 판타지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단 한번 몸치장에 1억원의 거액을 가볍게 쓰고 남태평양의 섬을 통째로 빌리거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굉장히 유치한 방식으로 여자를 유혹하는 등의 내용을 어른들은 마치 만화를 보듯 시청하지만 10대들은 드라마의 이야기가 곧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한다. 하지만 달콤한 환상 속에는 항상 독이 있기 마련이다. 온갖 못된 짓을 해도 부자만 다니는 신화고라는 사립학교에 서민인 세탁소집 딸 금잔디(구혜선 분)가 전학오면서 꽃미남 그룹 F4의 사랑과 우정을 얻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금잔디가 리더 구준표의 눈에 띄어 단숨에 대한민국의 1% 삶에 편입하고, 구준표와 F4의 또 다른 멤버 윤지후(김현중 분) 사이에서 갈갈질갈하는 스토리가 핵심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website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